

다양한 기부문화 따뜻한 메시지 소개

2011 아름다운
나눔&기부 UCC 공모전

4일 제주협의회서 시상식...인천대팀 최우수상 수상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의소리가 공동 주최한 '2011 아름다운 나눔&기부 UCC 공모전'에서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팀(대표 이동열)이 출품한 '작은 기부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기부 문화를 영상으로 알기 쉽게 표현했고, 기부자의 행위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표현했다"며 "영상 구성과 기술이 조화를 잘 이뤘다"는 심사위원단의 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인천대팀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우수상에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소도리영상기자단(대표 김승범)의 '우리 함께 나뉘요', 장려상에는 백선아씨의 '나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팀의 '사탕팔이 소녀', 조영재씨의 '나눔의 미학' 등이 선정됐다.

나눔방법을 소개한 '우리 함께 나뉘요'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배경음악과 자막처리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 기술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기부를 실천하는 모습을 다



채롭게 담은 '나눔'은 "애니메이션과 인터뷰 기법을 적절히 사용해 재미를 더했으며,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과 3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도내외에서 총 23편이 응모(공모기간 7월 15일~9월 30일)했다.

심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들

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작품성, 창의성, 영상기법, 목적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평가가 이뤄졌다. 심사위원은 김동만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서정수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팀장, 최영열 일배움터 원장 등 모두 3명.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기부방법을 소개하거나 따뜻한 기부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해 심사가 쉽지 않

았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4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에서 열린다. 수상작은 제주협의회와 '제주의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유튜브(www.youtube.com)와 다음tv팟(tvpot.daum.net)에서도 수상작을 볼 수 있다.

수상작들은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기부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 공무원 임용 20주년
발자취 및 활동사례집 발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임용 20주년을 뒤돌아보는 발자취 및 활동사례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김용일)는 공동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20년간 현장을 발로 뛰며 복지대상자와 에환을 함께한 발자취를 활동사례로 정리해 책으로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사진으로 돌아본 20년 발자취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연구사례 7편, 활동수기 11편, 자작시 5편, 선배공무원 인터뷰 3편, 사회복지 정책제안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또 소외계층을 위한 열성적이고 친절한 인처리에 감동을 받은 각계각층의 친절·칭찬사례의 글도 실렸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개인시설 후원금 공개 의무화
시설 탐방·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리폼재미에 폭 빠진 가물르의 집
하늘소용 준비하는 어르신들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포럼

하늘 출판인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 701-8 1층
TEL_ (064)721-3436 FAX_ (064)753-3443 Mobile_ 010-6690-3436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공개 의무화

권익위, 사회복지사업투명성 향상 제도개선 권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시설도 결산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법인이 감사를 선임할 때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지자체가 형식적인 지도나 점검을 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의 지도·점검권한을 위탁(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통제시스템으로

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정부의 지도·감독 인력 및 법규상 한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법인의 경우 법인 및 시설회계에 대해 결산서와 후원금 내역 등을 지자체에 보고·공개하고 있으나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시설의 횡령이나 회계서류 조작, 리베이트 수수를 예방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결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 공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봐주기 감사·묵인 등 형식적인 내부 감사를 통제하기 위해 감사 선임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문인력 부족과 업무 숙지 차이 등으로 지자체별로 지도·점검시 유사위반에 대한 처분이 서로 다르거나 관련규정 미숙지로 행정처분 패소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지도·점검 권한을 전문가에 위탁(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수급자 자활사업 참여기준 변경

60만원 이하주 3일 이상근로자도 참여가능

그동안 자활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던 취업수급자(주 3일 이상 근로)에 대한 참여기준이 완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주당 평균 3일(22시간) 이상

근로 등에 종사하는 취업수급자 등은 자활사업 참여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자활사업 참여 제외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주당 평균 3일(22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소득의 합이 60만원 이하이면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근로능

력은 있으나 취업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에서 제외된 수급 대상자에 대한 기준변경 안내와 상담 등을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소득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이들의 자활·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적성에 맞는 개인별 자활자원계획을 수립해 적정한 자활사업에 배치할 계획이다.



나눔은 기쁨, 행복한 동행

(공동위원장 고창후, 이상구) 주관으로 10월 22일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2011 서귀포시 행복나눔의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나눔장터에서 의류를 고르고 있다.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회(공동위원장 고창후, 이상구) 주관으로 10월 22일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2011 서귀포시 행복나눔의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나눔장터에서 의류를 고르고 있다.



장애청소년수영교실 진행

사회복지법인 유진재활센터 주·단기시설(원장 최은미)은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의 과잉행동문제 해소를 위한 수영교실 ‘水里수리 마수리’ 프로그램을 주 3회(월·목·금요일) 애월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유진재활센터는 ▲사춘기 장애청소년들의 성적 에너지 발산을 통한 정상적인 성장지원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부모 성교육을 통한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 문의=747-1371.

도감사위김성진 주무관 민원봉사 '본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김성진(사회복지 6급·48) 주무관이 10월 19일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제15회 민원봉사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민원봉사대상은 행정최일선에서 민원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6급 이하 공무원과 농협 직원을 발굴·표창하는 상으로 1997년 제정됐다.

김 주무관은 혼자 사는 노

인들을 위한 요구르트 지원 사업을 비롯해 ▲노인 3터치 프로그램 ▲노인 대독 서비스 ▲장애인 택배서비스 ▲세대교환 토크쇼 ▲응용복지 포럼 운영 ▲입체 자활상담실 운영 등 친서민 복지시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전국에 파급시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무보증, 무담보’ 자활기금제도를 시행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등 20년 동안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보호에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돌회 커밍데이 봉사활동 정보교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 소속 광돌회(회장 고미자)는 10월 1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선후배들간 모임을 갖고 오름등반(용눈이오름)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커밍데이에는 선·후배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교

류 시간을 가졌고, 서로간 격려를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봉사회가 되자고 다짐했다.

제주도, 사회복지 9급 10명 공채

내달 10일 필기시험...저소득층·장애인 50% 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0일에 사회복지 9급 공무원 10명(서귀포시 4명)을 채용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공채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총 채용인원의 50%를 저소득층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면접시험일(2012년 3월 13일) 현재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2011년 1월 1일부터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제주도로 돼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돼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경우라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제주도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예정자들이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내년 3월에 치르기로 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9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500,000	500,000
난치병환아후원	70,000	0
자원봉사후원	700,000	700,000
복지사업후원	990,000	8,169,210
푸드마켓후원	3,856,000	899,15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48)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청소년 아우르는 보금자리

제주시 동부 거점센터...“지역사회 관심 필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놀이,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올해 4월 제주시 동부지역 거점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된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미란)를 10월 21일 찾았다.

“밤 늦게 동네를 배회하는 아이들, 물건을 훔치는 아이들,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박미란 시설장이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한 이유다. 지난 2004년 8월 문을 연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는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인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40명. 이들의 대부분은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자녀다.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교육 ▲보호 ▲문화 ▲복지 ▲지역사회 연계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습지도는 물론 생활교육, 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 교육 등 다양하다. 과학교실, 미술치료, 종이접기교실, 영어캠프, 다도예절교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좌읍 상도리에 위치한 125전투경찰부대와 연계해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학습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 프로그램이 단연 돋보인다. 연극,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예체능 분야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아이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센터 아동들로 구성된 발레단과 어린이밴드, 축구단의 실력은 아이들치곤 수준급이다.

제주대 소리어울림단은 매주 센터를 찾아 피아노, 드럼, 바이올린 등 악

기교실을 연다. 센터 아동들은 이렇게 배우고 연습한 실력과 끼를 공연을 통해 마음껏 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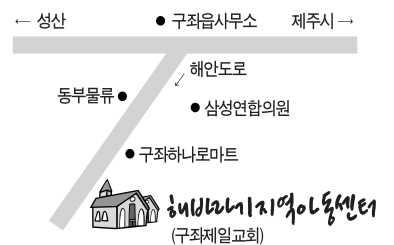
센터 아동들과 어머니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엄마랑 하는 난타’ 팀은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마련한 2011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로 5년째 운영하는 야간보호 프로그램인 ‘구좌읍 청소년 가슴에 별을 달자’는 야간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조손·한부모가정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정평이 난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시범사업으로 제주시 동부지역 거점아동센터

로 선정됐다. 거점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운영모형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박미란 시설장은 “지역아동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복지시설로 만들겠다”며 “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 ‘호응’

2400만원 지원...“복지문제 해결 구심체 되도록 최선”

제주시 관내 7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서함양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휴먼네트워크 프로그램인 ‘희망의 날개달기 멘토링’ 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말까지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멘토교육, 캠프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아라주공영구입대아파트 주민역량강화 프로젝트인 ‘주민에 의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 환경개선과 주민 화합·소통 문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이들의 제주시회 적응, 요리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은

‘흙 사랑, 도에 사랑’을 주제로 지역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자기 도예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랑 나눔 예술봉사대’를 결성해 노인들에게 레크리에이션과 민요 등을 가르치고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으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으로 그룹사운드 동아리 ‘우리 동네 밴드’를 조직해 문화여간이 열악한 농어촌 주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특화사업을 공모해 종합사회복지관별로 1건을 선정,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총 24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씩씩하게 자유롭게”

도아동보호전문기관, 눈과귀가열리는 CAP프로그램진행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CAP센터(소장 정원철)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CAP (Child Assault Prevention·아동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CAP은 아이들이 학교폭력, 성폭력, 유괴 등의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재단에서는 2009년에 도입, 진행 중에 있다.

CAP프로그램은 자유토론식으로 권리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대표적으로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는 사례 등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극으로 표현한다.

역할극은 또래 괴롭힘, 낮은 사람에 의한 실종·유괴 상황, 아는 어른에 의한 성폭

력 등의 내용으로 단계별 임파워먼트가 가능한 순으로 진행된다.

이는 아이들이 폭력상황에서 싫다는 표현을 아는 어른보다는 또래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구성된 것이다.

CAP프로그램은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함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내재된 마음의 힘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위험한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호신술(안전거리, 정강이 낮게 차기, 팔꿈치 치기, CAP고함 지르기, 새끼손가락 꺾기 등)을 가르쳐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성폭력의 경우 ‘지키지 않아도 되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른이라 할지라도 안전을 위해서 당당하게 “싫어요, 안돼요” 등의 싫다는



표현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CAP워크숍을 진행하고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며 다른 교육과 차별화를 시키고 있다.

제주CAP센터는 현재 10개 초등학교 2600여명을 대상으로 CAP을 진행했으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구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신청문의는 제주CAP센터 712-1391~4.

“리폼 재미에 푹 빠졌어요”

가롤로의집 ‘리폼교실’ 진행

“위잉” “두두두두두” “탕탕 탕” 가롤로의 집은 매주 목요일만 되면 가구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자르고 나무에 구멍을 뚫는 소리로 시끄럽다.

가롤로의 집은 지난해부터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 지적장애인들에게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잠재된 창의력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고자 ‘나무와 재활용품가구 및 폐품을 이용한 리폼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동네에 버려진 가구와 빈 캔, 냄비를 수거해 낡은 테이블은 자르고 깎아 나무향기가 솔솔 나는 멋진 테이블로 재탄생되고, 빈캔은 빈티지한 화분으로, 냄비는 예쁜 색을 입히고 그림을 넣어 시계로 변화시킨다.

고수지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능숙하게 페인트를 칠

하고 나무에 못을 박고 멋진 작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페인팅도 여기저기 들쭉날쭉 칠하고 못을 잘못 박아 물건을 망쳐버리기도 여러 차례, 한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해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또 전동드릴, 충전드릴 등 기계를 직접 다루야하는데 웅웅 소리를 내는 기계가 무서워 “싫어요, 안해요”라며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프로그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끊임없는 반복교육을 통해 간단한 작업부터 세밀함을 필요로 하는 치수선 재기, 공구 사용 등 모든 과정을 조금씩 습득해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모든 공정을 장애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작업속도는 더뎠



지만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작품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작업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마다 재능도 달라 사포를 잘하는 진호(가명)씨, 스텐실을 잘하는 수경(가명)씨, 기계를 잘 다루는 지훈(가명)씨 등 각각 자신이 잘하는 작업을 분담해 작업을 하니 작업의 속도도 빨라지고 작품의 완성도도 조금씩 높아져 이제는 제법 가구다운 자태가 멋스럽다.

“우와 저게 우리가 만들었

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요. 다음에 뭐 만들어요?”라며 다음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선주(가명)씨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가롤로 공방’ 탄생 기대해 본다.

오늘도 가롤로의 집에서는 희망을 가꿔가는 아름다운 소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한편 가롤로의 집은 오는 18~19일 열리는 MBC바자회에서 리폼홍보전시관을 마련해 지금까지 만들어온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홍철 명예기자〉



이동복지빨래방서비스 실시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인)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류와 침구류의 세탁을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세탁기 4대가 탑재된 특수차량이 대상가구를 방문, 세탁물을 직접 수거한 뒤 일괄 세탁한 후 다시 가정으로 배달을 해주고 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유재복)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이동빨래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0월 19일에는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해 빨래와 청소,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식/마/당

색깔찾아가는 프로젝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는 10월 6일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지적장애인 사회통합지원을 위한 봄·여름·가을·겨울 색깔찾아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적장애인과 자원봉사자 30여명이 함께 우도올레길을 걸으며 지적장애인들이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간 유대관계 형성 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숲체험 프로그램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10월 15일 자원봉사자, 운영위원, 위탁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래자연휴양림에서 함께하는 숲체험 동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 운영위원, 위탁부모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아동을 돕기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어울림터, 7대경관투표 참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는 9월 17일 어울림터 다목적실에서 시설이용자와 종사자 등 40여명이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에 참여했다.

특히 조성훈(29·지적장애 1급) 원생은 지난 2년간 한푼두푼 모아온 동전저금통을 모두 털어 4만원을 투표행사에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노인복지관 무료법률상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관장 휴완스님)은 10월 7일 복지관 상담실에서 정대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변호사와 어르신이 일대일 면접상담법으로 진행된 법률상담에서는 재산문제, 자녀문제, 건물임대 등 다양한 생활문제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장애인부모회 재활치료실 개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9월 29일 김태석·이선화 도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활치료실 개원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장애인부모회는 치료실 개원을 통해 제주지역 장애인과 부모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가의집, 자연체험 프로그램 진행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10월 8일 생활인들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의 소중한 및 정서순환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라산 등반 및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윗세오름에서 자신의 소원을 담은 카드도 작성하고, 어리목 창작교실에서는 나뭇잎을 이용한 꽃 액자를 만드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주도의회 ‘낭그늘쉼터’ 개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도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낭그늘 쉼터’가 10월 17일 문을 열었다.

낭그늘 쉼터는 의회 공간내에서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의정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낭그늘 쉼터는 사회적 기업이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일배움터가 임대해 관리 운영하며,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과 친환경농산물, 음료, 간식거리가 판매된다.



사마리아인회 조순가정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 조순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차상)와 제주성인교회 사마리아인회(회장 현기홍)는 9월 25일 공동으로 방문 없이 커튼을 막아 생활하고 있는 조순가정에 방문을 설치하고, 마당에는 샤워시설을 설치해 주는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하늘로 소풍가는 아름다운 노년 준비

아름다운 하늘소풍 떠나보실래요?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경희)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기에 걸쳐 웰다잉(Well-Dying)을 주제로 한 '하늘소풍 준비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늘소풍은 어르신들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남은 노후를 좀 더 행복하게 준비하고 보내기 위한 죽음준비 교육이다.

참가자의 평균나이는 71.6세. 이들에게 '건강체조(동부보 건소 연계)', '죽음, 또 다른 삶을 준비하며',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우리는 행복한 노년기', '자서전꾸미기', '유언장 작성', '양자공원 견학' 등의 특강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4년째 운영되고 있는 '하늘소풍 준비하기' 프로그램의 키워드는 '웰다잉(Well-dying)', '해피엔딩(Happy Ending)'이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삶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어 가지있고 아름답게 편안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하늘소풍(=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설레는 마음으로 소풍을 가듯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이 프로그램에 무척 만족하고 있다. 한 참가자는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재가 너무도

소중한 시간임을 다시금 깨닫고 앞으로 이 삶을 소중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관장은 "죽음이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가족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하고 바람직한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소영 명예기자〉

“천연비누 만들며 희망을 품어요”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김정현)는 8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발전소(소장 정재홍, 이하 발전소)와 함께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천연비누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발전소는 이번 사업에 비누재료 구입비로 100만원을 후원하고, 천연비누 만들

기 교육을 받은 후 이용자와 함께 하는 천연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비누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게 무료로 나눠줬으며, 일부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장애인들에게 돌아갔다.

제주케어하우스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



한 비누를 평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비록 적지만 따뜻한 대가를 얻는 등 이번 사업은 중증 장애인에게 가능성과 소중한 희망을 심어줬다고 밝혔다.

동제주복지관어르신 한마당잔치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경희)은 10월 13일 어르신과 주민간의 유대강화 및 화합을 도모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구좌읍 16개 경로당 어르신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좌체육관에서 '2011년 어르신과 함께 하는 한마당잔치' 행사를 개

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하나아트(사물놀이), 구좌읍주부회(난타), 해군군악대, 구좌읍민요동아리패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졌고, 경로당별 장기자랑에는 8개팀이 출전해 한달 전부터 연습해온 실력을 선보이며 노인들간 친목도 다졌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0월 식품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305kg ▲서문식품=두부 384모, 콩나물 160봉 ▲김치원=김치 40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2ℓ 900개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채소 80kg ▲한국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회원협회=쌀 960kg ▲아산재단=쌀 200kg ▲청룡수산물=쌀 400kg ▲국제라이온스클럽354-G지구=쌀 2400kg ▲떡마을=떡 40kg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문화교양학과=150만원 ▲KT제주마케팅단=300만원 ▲김세실리아=조기 15kg ▲CMS후원자=205명 175만원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기초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한형범)는 10월 7일과 11일 사협회 교육장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체계 확립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기초교육 'Power Supervisor - 제주 1기'를 시행, 2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전문인력에 대한 질적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사회복지 전문 영역별 교육의 개별적 진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한형범 회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도내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향후 심화와정을 개설해 교육수료기관에 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랑의 열매 착한가게봉사단 발대식

사랑의 열매 착한가게봉사단(단장 고윤권)이 10월 19일 제주하니크라운호텔에서 봉사단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봉사단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가입한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어린이집, 학원, 병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부'의 고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포괄적인 의미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이다.

착한가게봉사단은 착한가게



확산 캠페인, 사랑의 동전 모금함 설치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착한가게는 2008년 12월 바위수산(1호점)을 시작으로 10월 19일까지 327호점의 착한가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배워서 남 주자!’ 어르신들의 즐거운 외침!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10월 19~20일 노인학대예방사업에 봉사하고 있는 노인행복지킴이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지킴이 역량강화프로그램인 ‘배워서 남 주자!’를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놀이&표현예술치료, 발마사지법 교육, 치매예방교육, 도자기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가한 어르신들은 적극적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과 제주사회를 위해 봉사하기로 다짐했다.

노인행복지킴이단은 노인학대예방교육활동, 홍보활동, 독거노인지지 및 모니터링(어르신과 함께 하는 이동상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박광수는)는 9월 27~28일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회원시설 종사자간의 교류 확대를 위해 2011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180여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변화하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정책간담회, 시설거주장애인들의 돌출행동에 관한 대응전략,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의 윤리적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뤄졌다.

또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간의 정보교류 및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화합의 장을 마련, 종사자들의 재충전 시간을 가졌다.



칼럼

미흡한 내년도 복지예산안



한 영 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처장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년 대비 17조원(5.5%)이 증가한 326.1조원에 이른다. 이번 예산안에도 이명박 정부의 재정관리 기본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즉 재정지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보다 2~3%를 낮게 두는 '재정준칙'이다. 이는 그동안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많았던 재정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재정준칙이 구현되면 재정수지는 2013년에 균형에 도달하고 2014년부터는 약간의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예산 증가대부분 의무지출

그러나 내년 예산안 지출구조를 보면 복지예산 확충에는 인색한 면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을 전년보다 5.6조원(6.4%) 증가한 92조원으로 편성

했다. 전체 재정규모 대비 2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역대 최고 금액을 편성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복지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 위주로 편성했다고 한다. 주목되는 내용을 보면 1만5000원 부담했던 민간병원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5000원만 내면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세 아동의 보육료와 육아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동시에 방과 후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를 35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이동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1만9000명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며 편성된 복지예산 지출구조를 보면 새롭게 확대된 복지예산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예산 증가는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에 기인하고 있다. 노인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기초노령연금 지출액이 증가하고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면 연금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 내년에 증가하는 복지지출 규모 5.6조원을 보면 정부의 재정적 예산편성과 무관하게 정해진 공적연금 증가분이 3.2조원을 차

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 0.4조원, 건강보험 국고지원분 0.3조원, 보훈보상금 0.2조원, 복지지출로 보기 어려운 주택부문 증가분 0.9조원, 보육료 지원 등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예산편성 재량권을 적용할 수 있는 복지지출은 0.5조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국가 평균 절반도 안돼

2007년 OECD가 발표한 GDP 대비 국가별 공공복지지출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복지예산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7.5%에 그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19.3%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총지출 대비 공공복지 비중 역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이다. 독일이 5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6.3%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복지예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없을 경우 GDP대비 복지예산비중은 갈수록 하락할 것이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해마다 5~6% 증가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명목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OECD 국가들과의 복지비중이 점점 더 벌어지면서 복지 취약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복지예산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시론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산업혁명으로 확립된 자본주의는 오늘날 시장경제체제의 초석이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부의 분배, 열악한 노동환경, 실업문제, 주거환경, 불평등 등 수많은 역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 중 하나가 사회주의이다.

그러나 순수한 자본주의국가나 사회주의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국가는 시장(市場)이 결정하는 시스템에 국가개입이 혼합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이념은 사회법으로 귀결되고, 사회복지지는 사회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체제 역기능 극복해야

복지란 생활이 불만이 없이, 평안히 잘 지내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하며, 사회복지지는 개인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노력이다. 즉,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우리사회에는 극빈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지는 국가개입 없이 자본가들에 의한 실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민간복지지는 잔여적복지 차원이어서 제도적 복지실천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가 수정자본주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자본주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요즘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선 학생, 시민, 노동자들이 "이곳 월가를 점령하자"는 구호 아래 시위를 하고 있다. 장기불황에 실업률이 상승하고 '소외계층의 부를 침탈하기는 가진 자들에 대한 항의' 그리고 '경제집체의 책임이 큰 투자은행들에 대한 항의'를 시작으로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측면이 강했지만,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구제금융 5조원을 지원하여 회생되었다. 이제 금융권은 배당, 성과급 등 그들만의 잔치를 계획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허탈한 것이다.

영세사업자들은 금융카드 결제수수료가 높다고 아우성이다. 은행에서는 130여 종류의 항목을 만들어 고객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이 수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기업들도 수수료에 등골이 휘고 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를 주장하는 금융권의 항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의 편중, 자본주의 병폐는 틀림없어 보인다. 서민들은 자본주의체제의 역기능인 소수에 편중된 부와 독과점, 가진 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극에 달해 있다. 분노의 감정은 시위로 폭발하고 있다.

자본주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법 개정과 사회주의 이념을 가미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여, 분배정의와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 행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사회안전망은 미흡하다. 사회복지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자본주의체제의 역기능을 극복해야만 될 것이다.

기고

지역이 함께하는 아동복지, 가정위탁



강 세 현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1946년 영국의 카터스위원회에서는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아동복지 원칙을 제안하였고,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아동보호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요보호아동은 생활시설보다는 입양가정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오늘날 아동복지에 적용되는 기본원리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제주에서도 2003년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위탁가정 발굴, 가정위탁 가정 및 대상 아동

의 조사,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아동정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위탁아동은 284세대 386명 중 70%가 넘는 가정이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가정이라고 한다. 대리양육가정 아동들은 친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되면서 지역의 가족문화 특성상 조부모가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조부모의 어려운 경제 여건, 건강 상태, 조부모와 손자 간의 세대 차이,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요인으로 일반위탁가정에 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리양육가정의 아동만이 아니라 많은 위탁아동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부적응 및 비행, 인터넷 중독, 우울증 등이 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많

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가 어려운 아동들의 가정보호에 대해 공감하고, 상담, 심리치료, 법률, 의료 등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주민들이 아동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 참여 및 재능기부 등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예로 미국 통신회사인 AT&T는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줄이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할과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하면 우리 제주에서도 아동들의 학습지원, 멘토링 문화체험, 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를 비롯한 실천들이 활성화 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미래사회 주역인 제주 아동의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포럼

“장애인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 필요”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포럼’이 10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기업 활성화 방안과 장애인 창업 촉진 방안, 두 가지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본지는 웰페어뉴스의 기사를 제공받아 포럼내용을 소개한다.



△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포럼’이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동 주관으로 10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책자금 활용도 1.9% 그쳐...외부자본활용 미흡

특허 등 기술력 취득시 법인·소득세 감면폭 확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박성호 박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80여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2600여 명의 중증근로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공모, 열매나눔재단과 원포인트경영연구원이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주한 것.

일본 오이타현 벳부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장애인공장 ‘태양의 집’은 정형외과 의사였던故 나카무라 유타카 박사가 1965년 설립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오므론이 1972년 첫 장애인 공장을 세운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현재 소니, 미쯔비시, 혼다, 오무론 등 일본 대기업들과 태양의 집이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가 8곳에 위치해 있으며, 장애인 1200여명을 고용했다.

태양의 집에서 시작된 장애인 고용 목적의 특례 자회사는 현재 일본 전국 200여 곳에 있을 정도로 확산됐다는 게 박 박사의 설명이다.

또한 태양의 집 주변에 있는 은행 등 편의시설은 모두 장애인이 운영·일하고 있다.

박 박사는 “우리나라에는 2008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됐지만, 장애인의

기업 운영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며 서울시장재인직업재활지원시스템 구축사업과 일본 태양의 집 사례를 토대로 ▲대기업 연계 기술창업 교육 ▲유망 창업가 발굴 프로젝트 운영 ▲장애인 지역창업도우미 발굴·육성 ▲장애인 전문여행사 창업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술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창업 교육 ▲장애인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장애인 창업(기업)정책개발연구소 설립 ▲대기업과 장애인기업 동반성장 구축 ▲장애인기업 지역센터 확대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김유찬 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심충진 교수와 함께한 ‘장애인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기업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꼽았다. 김 교수는 “장애인기업의 경우 영세한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며, 자기자본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금확보 현황은 자기자본 조달이 75.3%로 가장 높았고, 금융기관 대출 18.0%, 개인사채 4.3%, 정부정책자금 1.9%, 회사채 및 주식발행 0.4%, 창투자 및 벤처

캐피탈 0.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정부정책자금 활용도는 1.9%에 불과해 조달경로로써 정책자금 및 외부 자본 활용이 미흡하다. 현재의 자금 사정은 연체는 하고 있지만 매우 힘든 수준이 73.9%였고, 공과금·세금 등을 연체하고 있는 수준 16.2%, 외상대금 지불을 지연하고 있는 수준 9.0%, 직원들의 월급 지불이 지연되고 있는 수준 0.8% 순으로 상당수의 기업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김 교수는 장애인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해당 모태펀드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단,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40% 이상 유지, 회계·세무 전문가 컨설팅 월 1회 이상, 기업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기업의 재무현황을 공시해야만 모태펀드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또 창업기업의 가장 큰 경영 애로는 매출부진(43.6%)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를 인하 적용 ▲장애인기업 제품을 수요하는 일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장애인기업 제품 면세제와 5%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과세제와 15% 매입세액 공제 ▲인터넷을 이용한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 개선을 주장

했다.

김 교수는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기업이 특허 및 기술력을 장애인기업에 이전할 경우 세제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조세법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

이율)를 확대해 장애인기업 창업 매칭시스템 조사분석의 지원과 장애인 창업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업진흥원 김경재 박사는 “장애인기업의 팀 창업은 기술

창업자 역량분석 및 업종매칭시스템 고도화 제안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개발·운영해야

특례)를 확대해 장애인기업이 특허 등 기술력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폭을 확대하고,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를 확대해 장애인기업에 기술력(특허 등)을 제공할 경우 소득세를 100%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창업 촉진 방안에 대해 이지플랜 컨설팅 정극재 대표는 ‘창업자 역량분석 및 업종매칭시스템 고도화’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장유형별 평가항목 및 역량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항목별 진단 평가배점을 검토하는 등 매칭시스템 항목의 변수요인 분석 및 적용을 위한 모형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력 확보, 창업·운영자금 확보, 전문경영지식 및 경험확보가 주요인”이라며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운영 시 팀 단위 참가팀을 우대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팀 단위 창업팀의 가점 부여 및 일정비율을 입주하고, 팀 구성이 희망하는 업종경력자와의 매칭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강점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개발·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원스톱 ▲인큐베이트 사업개선 및 고도화 ▲직무환경의 곤란요소 조사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 ▲적합 직무의 개발 및 전파 ▲직무 적응 프로그램의 제공 ▲내부지향의 관리시스템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 예시 등이 제시됐다.



문화바우처
www.cvoucher.kr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JEJU CULTURE & ARTS EDUCATION SUPPORT CENTER
www.artreach.or.kr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 프로그램 : ○ 멋진 관객이 되는법, ○ 공연예술과 직업세계
○ 꽃이하는 이야기, ○ 한박자 한걸음
- 이용방법 : 신청서 접수 → 강사와 협의 후 교육일정 확정 →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교육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jcafor.kr, www.artreach.or.kr)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문화바우처사업(www.cvoucher.kr)은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고 즐기기 어려웠던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문화카드 사업과 문화카드만으로는 자발적·적극적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의) - 문화카드 02-760-4704
-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제주문화예술재단)
064-800-9154 / 064-800-9168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www.artreach.or.kr)는

- 문화예술교육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문화예술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켜 제주도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 인재육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지원기관입니다.
- 주요사업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교재개발 및 연구사업,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등
- 문의)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제주문화예술재단)
064-726-3004